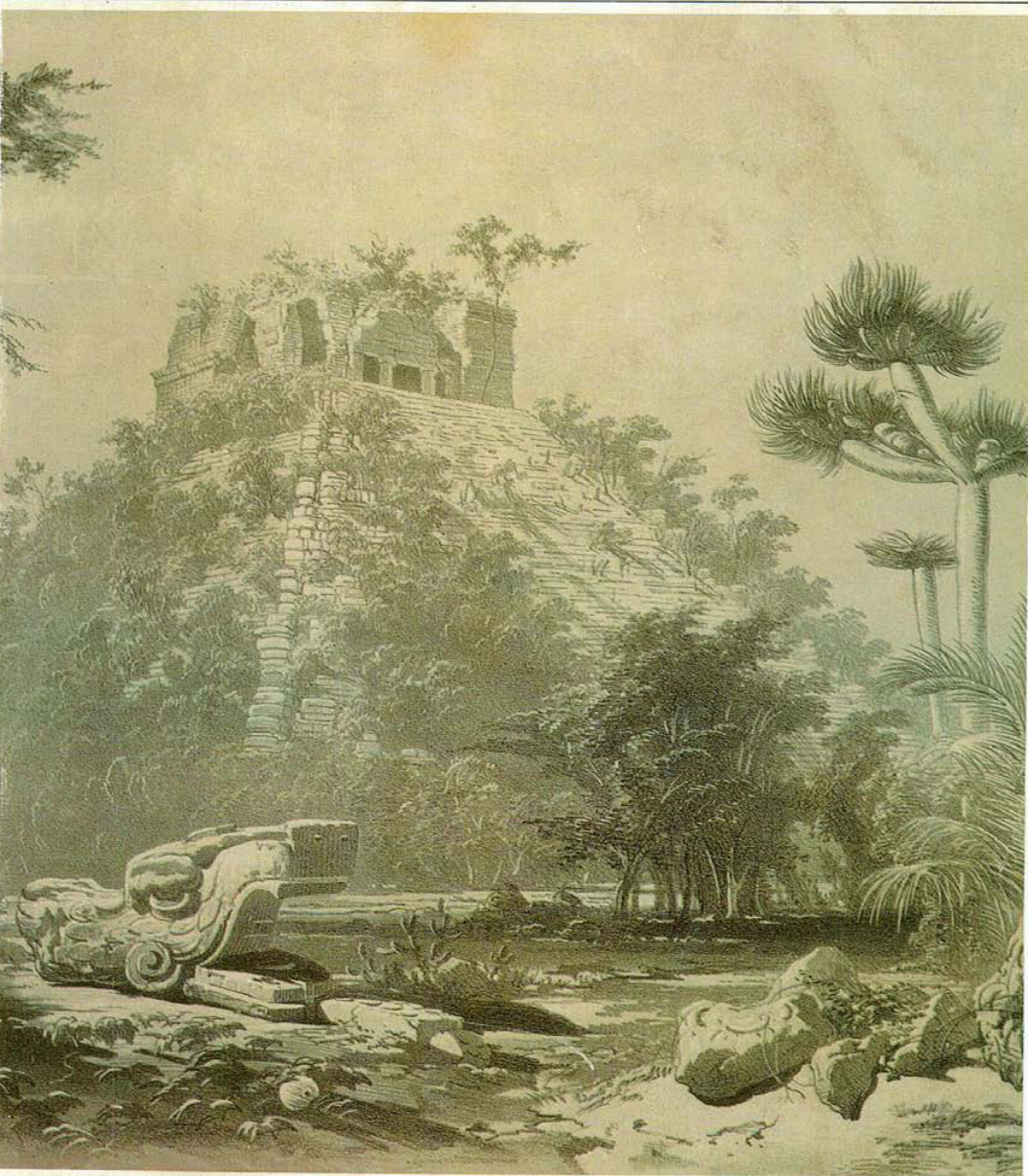


성도의 빛 1

1978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1

1978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롭니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헨스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차례

물몬경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물몬일지
“그것을 갖다 준다면 한번 읽어보겠소”
-----마저리 에이 맥코믹----- 7
물몬경의 힘 ----- 린다 엘 스테이튼 ----- 8
미대륙의 성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 주디스 티 로이즈 ----- 10

질의응답 -----엘런 이 릿스터----- 12
시온건설 -----부르스 알 맥쿱키 장로 14
예술적인 면에서 공과를 준비함·데오이 맥킨 ... 20
이상한 새 ----- 존 러브랜드 ----- 21
불기둥 -----메이블 존스 개뿔 ----- 22
코리의 침례 ----- 24
심심풀이 ----- 28
목적을 갖고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장로--- 31
아시아의 이스라엘인 ----스펜서 제이 팔머----- 35
지역 지도자 메시지 -----서울선교부장 하근수 --- 43
지역 소식 ----- 44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150호, 제14권 제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1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1년 1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우

물몬경은 인간과 그의 본성에 대해 가장 깊은 면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인간 본성의 두 가지 극단적인 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위대하고 본질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극악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극단적인 성격의 중간에 해당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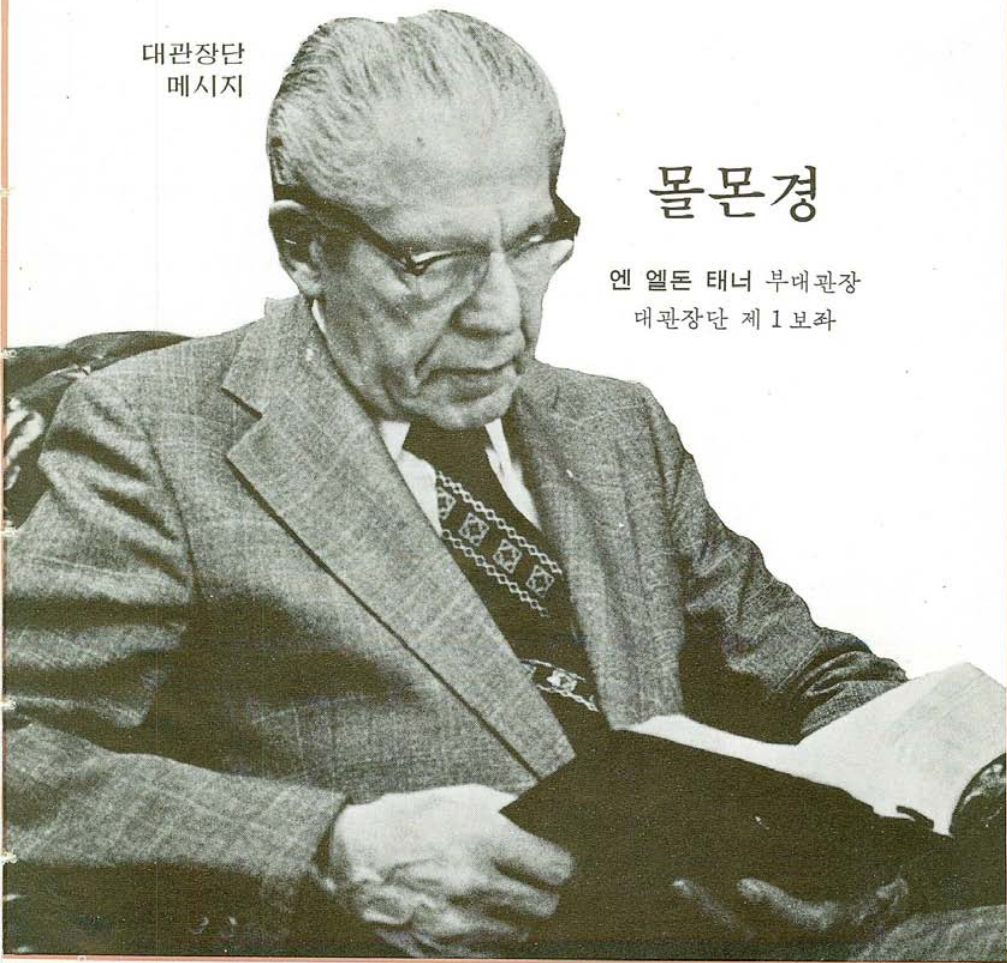
나 대부분의 니파이인의 기록은 주님을 섬기고 많은 축복과 의로운 보상을 받은 자들과 악한 길을 따른 자들에 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 영혼의 저주의 잔을 마시리로다”(모 3:18)

나는 물몬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속주의 증거하는 또 하나의 책이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의 리하이의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는 “물몬경” 기사만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대관장단
메시지

물몬경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돌아가셨고 그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더 위대한 증거는 없으며 또한 이 책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미대륙에 모여든 무리의 마음속에는 그들 앞에 나타난 그가 부활하신 주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셨을 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삼 11 : 7)

더우기 구세주께서는 그 자신의 음성으로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선언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삼 11 : 10)

그가 그들의 주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그는 자기 앞에 엎드린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먼저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니파이삼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
(니삼 11 : 14—17)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광경은 모든 성스러운 기록 중 가장 장엄한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목격하고 그의 나타내심을 본자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몇몇의 성구를 읽음으로써 너무나 황홀하고 영적으로 고조되어서 우리가 이 위대한 종교상의 대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 하나를 놓쳐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 무리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들의 수효가 그 땅의 남북으로 퍼져 있는 많은 인구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교훈은 우리에게 밝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니파이삼서를 읽으면 크게 축복받았던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 남은” 니파이 백성과 “살아 남은” 레이먼 인이라 일컬음을 받던 백성들이며 이들은 “은혜를 입으며 크게 축복받았음을 너희에게 보이려니와, 저들의 축복이 컸던지라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곧 저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어, 저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며 가르치시니”(니삼 10 : 18, 19)라고 기록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교훈에 대한 열쇠는 반복된 성구 즉 “살아 남은 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니파이인과 레이먼인의 잔류민 이외에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 남게 된 자들은 남들보다 의로왔던 자로 예언자들을 돌로 치지 아니한 자요, 성도들의 죄를 흘리지 아니한

자들이라…….

“목숨을 건졌으며 가라앉거나 땅에 묻히지 아니하였고 깊은 바다물에 빠져죽지도 아니하였으며 불에 타 죽지도 아니하였고 넘어져 깔려 죽지도 아니하였고 회오리 바람에 말려 가지도 아니하였고 암흑의 안개와 연기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니삼 10 : 12-13)

또한 다음 성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라도 읽는 자는 깨닫게 하며, 경전을 가진 자로 이를 공부하게 하여, 이러한 불과 연기와 태풍과 회오리 바람과 땅이 열려 사람을 삼킴으로 인한 죽음과 파멸 등이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인 줄 깨달아 알도록 하라.” (니파이삼서 10 : 14)

참으로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들은 몰몬경의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 예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설명에 의하면 멸망은 사악한 자들에게 내려졌으며 단지 “더욱 의로운 백성들”만이 살아 남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몰몬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경전은 인류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대륙의 위대한 문화의 흥망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 민족들이 의롭고 주님을 경배했을 때는 그들의 업적과 문명은 크게 번영했으나 그들이 의를 외면했을 때에는 타락하여 전쟁과 혼란으로 멸망되었습니다.

이것이 몰몬경에서 배워야 할 인간 본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것을 아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 (모사이야서 3 : 19)

성도들에게 유순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베냐민 왕의 말씀은 결코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 지도자, 장군은 주님을 가장 충실하게 섬기며, 가장 신앙심이 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으며 주님과 교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예언자 3대, 즉 부친 리하이,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이노스에 이르는 3대가 절정의 때에 이르기 수백년 전에 이미 시현으로 구세주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몰몬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이노스는 의롭고 합당한 자가 끝까지 주께 구하면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

리를 높혀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노스야 네가 죄 사람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보다 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이노스서 2-6)

우리는 이노스가 용서받기 위해 구했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심각한 죄는 의심하는 죄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노스가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를 중단했다라면 이노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깁니다.

이노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로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부친 리하이의 가계의 3대의 예언자 중에 속하였습니다. 리하이 직계 가족까지도 주님을 섬기기를 구했던 의로운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루시퍼의 꾀임에 빠졌던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분열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리하이가 죽은 후 의로운 니파이를 따르는 가족들은 그들의 생명이 두려워 도망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던 자들은 불의한 레이먼과 레뮤엘에게 인도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니파이 시대로부터 예언자 모로나이에 의해서 구모라 언덕에 기록을 묻어 둘 때까지 약 1,000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노스의 기록에서 인간 본성에 관한 또 하나의 특별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사악한 길로 이끌기 위한 유혹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는 니파이를 따르는 자들이 언제

나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니파이의 조카 이노스는 그 백성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니파이인들은 땅을 갈아 온갖 곡물과 과실을 재배하고, 온갖 가축, 소, 염소, 들염소 그리고 말도 많이 길렀으며,”

니파이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노스는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선지자가 많았으나, 백성들은 교만하여 배우려 하지 않았으니,

“저들이 계속하여 주를 경의하게 하면서, 전쟁과 다툼과 멸망을 가르쳐 예언하며 죽음의 뜻과 영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를 저들에게 가르쳐 일깨움이 심히 곤란하였도다. 이러한 것이 모두 저들을 빠른 멸망에서 구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며 알아듣기 심히 명료한 말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저들에 관하여 나는 이렇게 기록하노라.

“또한 나는 내 평생을 두고 니파이인들과 레이먼인들 간의 전쟁을 보았느니라.”(이노스서 21-24)

이미 불문경 이야기의 양상이 뚜렷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록 의로운 쪽으로 발길을 돌린 자들도 교만하여 주님의 길을 배우려 하지 않았음을 배웠습니다. 의로운 자가 번성하여 풍족하여졌을 때는 그들의 축복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잊어버리는 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예는 이 대륙의 백성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시기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니파이삼서 처음 몇장에서 우리는 개다이엔튼 도적단으로 잘 알려져있는 “개다이엔튼의 비밀 결사”와 싸워 이긴 니파이인들의 전쟁 기사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는 니파이인의 의로운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으며, 그 결과 니파이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적이 항복하자 니파이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고 “다 함께 소리쳐, 큰 은혜를 베푸사 저들을 보호하시어 적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저들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고” 그리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부풀어, 저들을 적의 손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니삼 4 : 31, 33 참조) 흘렸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자들이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대로 많은 표적이 보여졌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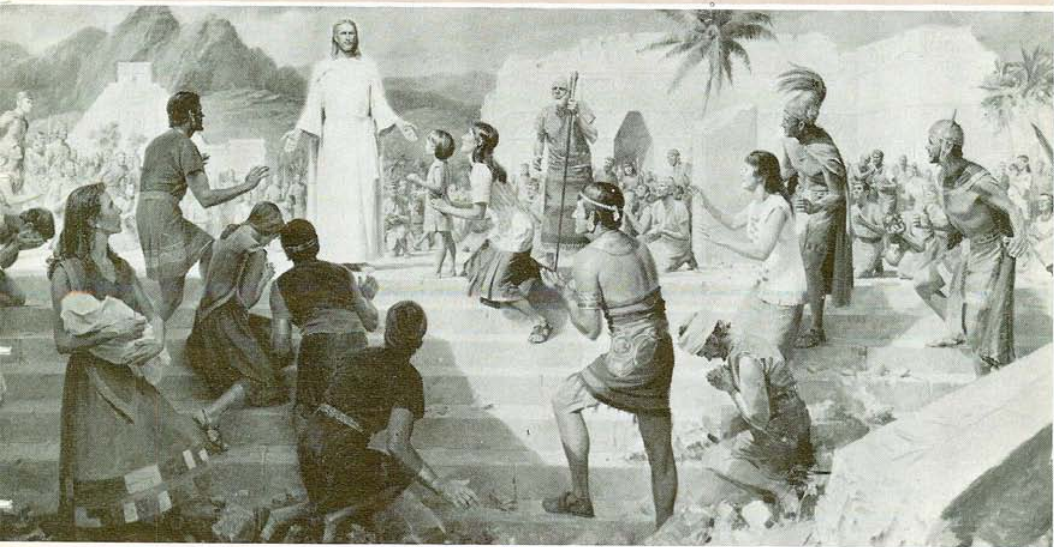
“저들의 온갖 죄악과 가증함과 음행을 버리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니삼 5 : 2, 3)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므로 옥에 들어가 그들이 사로잡은 많은 도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여 다시는 살인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자는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적에 의해 쫓겨났던 성읍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많은 대로를 만들었으며 그들은 이같이 “번영하여 강대하여졌습니다.” 이때가 주후 25년경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범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저들의 끊임 없는 번영을 방해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으니” (니삼 6 : 4, 5)

전에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그들은 번영에 따르는 갖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 경전은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십 구년에 이르러 백성들 간에 다툼이 일기 시작하였으니 저들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 자만하며 교만해지



더니……

“각각 저들이 지닌 부와 학식의 정도에 따라 계급이 생기더라. 어떤 백성은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어 무지하였고, 부유한 자들은 재물로 인하여 많은 학문을 닦았던지라.”(니파이삼서 6 : 10, 12)

그후 얼마 안가서 교만으로 부푼 자가 생기게 되었고 지극히 겸손한 자도 있었으며 그 땅에 커다란 차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진실로 개심하여 참된 신앙을 가진 레이멘인들의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니삼 6 : 14) 은 나라의 모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생긴 원인은 이러합니다. “사탄이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갖 간악함을 행하도록 선동하며, 교만으로 부푼게 하고 권세와 지위와 부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유혹하였음입니다.”

“이같이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갖 간악함을 행하게 한지라 저들이 평화를 누린 것은 불과 몇 해에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6 : 15—16)

나는 우리들이 물몬경에서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 몇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책에서, 위대한 축복은 주를 섬기며 그의 왕국을 세우기를 노력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과 위대한 도시와 문명은 의의 원칙 위에 세워지며, 백성들이 불의에 빠지면 그것들이 멸망된다는 사실과 주님은 비록 핍박을 받고 있으나 주를 섬기도록 애쓰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만약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거나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적이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

다.

우리는 또한 죄악의 원인은 교만과, 부와, 불의한 통치와, 계급 차별과, 이기심과 권세욕 등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배우며, 또한 물몬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며,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물몬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예언을 하시며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스러운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에 따라 의로운 자들의 머리 위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지며 사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멸망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서는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든지 멸망으로 위협하시든지 그가 하신 말씀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몬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지식을 얻어 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을 사는 데 보다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책을 읽고 연구한다면 이중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운 위대한 교훈을 생활에 적용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나는 물몬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나의 생애에 미친 영향을 감사하게 여기며,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신앙과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물론 일지

“그것을 갖다 준다면 한번 읽어보겠소”

마저리 에이 맥코믹

1925년 5월 어느 날, 영국의 어느 주물 공장에서 몇 명의 인부들이 코우크스 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공장에 새로 들어온 잭 에이치가 그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캐나다에 살았지만 거기서는 나쁜 언어나 더러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했우?”라고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이 물론이였지요.”라고 잭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론인 어느 노파와 함께 살았는데 그녀는 교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들의 모임에 참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참으로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도 아니하며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나쁜 욕설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선량해서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잭은 그에게 집에 두고 온 소책자 몇 권

을 읽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남편은 “그것을 갖다 준다면, 한번 읽어 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잭은 그에게 5권의 소책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 중 하나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소책자였으며 또 하나는 “정다운 토론”이란 소책자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무슨 책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책들을 집으로 가져 오자, 나는 그것을 탐독했습니다. 나의 남편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둘 다 매우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국 교회에서 자라났으며 나의 남편은 초기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교회를 다녔으며 아무 교회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은 대부분의 교사들과 목사들의 눈에는 매우 이상한 어린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복음을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셨지만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잭과 나의 남편은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영국에서 물론 교회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물론경을 몹시 읽고 싶었으며 아메리카 인디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소책자에서 발견한 유일한 성명과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주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펜데일 애브뉴, 브리감 에이치 로버츠. 그날 아침 비가 몹시 쏟아지고 있었으므로 나는 우유 배달원에게 걸 건너 편에 있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층으로 올라가 침대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나는 내가 틀림없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대 옆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가 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만일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만약 내가 답장을 받으면 참된 교회를 찾은 것으로 알고 즉시 그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2개월이 지나서 나는 토론토에 있는 선교부 서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탈매지 선교부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므로 그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르쳐 줄 것이며 물론경도 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나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려고 그에게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탈매지 선교부장으로부터 놀라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편지를 기억의 책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 런던의 북쪽 교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쪽 교외에 살고 있었으므로 런던 토트넘에 있는 교회 본부까지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교회를 찾으러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남편은 켈런을 피우고 있었으며 책은 파이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이 케이 아나스타션 형제가 그들에게 와서 흡연은 물론 신앙에 방해되므로 거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남편은 일단 내가 물론경을 잡으면 그는 거의 그 책을 읽을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물론경 2권을 샀습니다. 그들은 아나스타션 형제와 얼마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는 그들에게 주일날 모임 시간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경을 읽는 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워 놓고 우리는 벽난로가에 앉아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책의 첫 장도 채 못 읽었을 때 방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나는 마치 내 자신이 빛으로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계속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성신이 나에게 이 놀라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우리들을 위해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빛이 사라졌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책을 다시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후 3주 후에 침례받았습니다. *

물문경의 힘

린다 엘 스테이튼

최 근에 나는 간증회에서 어느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에 가입할 확신을 가졌을까요?”

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예, 당신의 교회에 가입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물론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거만 하다면 그 책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열어서 읽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그 책을 읽기만 한다면 당신의 의심은 사라지고 신앙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찰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일리노이주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같은 신교 교회에 다녔습니다. 나는 어렸지만 나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종종 그들에게 나를 집에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들은 나의 간청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따금 주일학교와 청소년 모임에 참석했으나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한 남자 친구가 나에게 그의 교회에 다니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으며 여름에는 성경 학교를 돕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토론했을 때 나는 그 교회도 내가 가입할 교회는 못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종 나는 기도로서 주께 “왜 제가 당신의 교회에서 안정을 느낄 수 없습니까? 제가 당신의 집에서 성령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나는 침례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때때로 딜렘마에 빠져 헤매는 나의 고뇌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기독교 신앙을 온 마음을 다하며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마이크와 나는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생겼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았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나는 그들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로 데리고 나갔읍니다. 그때 크리스는 4살이었고 크리스탈은 2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못 기뻐했으나, 나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나 온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교리를 연구했을 때 이 교회는 우리의 가족이 다닐 교회가 못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우리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다른 교회로 데리고 나갔읍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들을 문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그들을 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을 때 잘못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나를 엄습해 왔읍니다. 나는 그들을 거기서 다시 데리고 갈 수 없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쭙어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은 여름 동안 나는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서 아버지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역시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나만큼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휴가 때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결혼했던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자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휴가 때 우리는 미시간으로 가는 대신 서부 일리노이로 갔읍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부를 방문하였으며, 젊은 선교사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안내되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웃음에서 그들이 지닌 복음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카드를 작성하였고, 여자 안내원이 나의 남편에게 포지 안에 특별한 간증이 적힌 물문경 한 권을 전해 주었읍니

다. 우리는 따뜻한 느낌을 갖고 그곳을 떠났읍니다.

이 놀라운 책은 자동차의 좌석에 놓여 있었는데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책을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 실려 있는 지식을 갈구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번 남편에게 몇 구절을 읽어 주었고 우리는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에 놀랐읍니다. 2개월이 채 못되어 나는 그 책을 완전히 읽었으며 그 속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공부했고 그 얼마 후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유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의 고정 관념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어떠한 교사이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확신을 얻었고 이제 나는 그것을 즐겁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다음 주일날에 가르칠 공과를 준비하고 나서 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내 공과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지만 왜 그러한 일이 공과에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속삭일 때는 따뜻하고 놀라운 느낌이 나를 엄습해 왔읍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록 내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도움은 항상 나의 곁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울인 노력으로 다음 주 공과는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며 과거의 삶이 때때로 견딜 수 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며 때가 이르면 우리들을 그의 참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다시 살기 위하여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

미대륙의 성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디스 티 로이즈

내가 미대륙의 고대 백성에 관한 종교적 기록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하게 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종교적 견지에서 연구한 끝에 어느 날 나는 그러한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신교 교회에 다녔으나 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복수심과 증오에 차 계시는 분이라고 믿어 오던 관념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찾으려고 성경을 근거로 삼아 5년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참된 교회에 관한 원리를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참된 교회의 외적인 특성과 영적인 특성은 무엇일까?”라는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된 도서관 책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내게는 정말 풀기 어려운 난문제였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었던 모든 대답은 마지막 해답의 단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편을 찾은 것이 내게는 중요했습니다. 이는 내가 참된 교회를 찾을 때 비로소 참된 교회를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과 역사와 종교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진 자들과 교제를 갖기를 바랐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고대 문명에 관한 연구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의 피라밋과 미대륙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야 사람들이 어떻게 달력을 고안하였을까?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켈립버스가 정말 미대륙에 온 최초의 사람이었을까? 구대륙과 신대륙간의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많이 있었읍니다.

역사와 종교에 관한 고대 기록을 읽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유대인들만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내 마음을 끌기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우선 내가 “남미대륙의 성경”이라고 불렀는데, 점차로 나는 그 성경이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의 고대 기록을 많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웨인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하였을 때 그들은 많은 도서관을 파괴하고 미대륙의 원주민을 죽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코르메즈를 동방으로부터 오리라곤 전해지던 위대한 하얀 신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관계되는 모든 서적을 읽으면서 5년간에 걸쳐 행한 나의 연구가 끝날 무렵, 나는 참된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원리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 성신은 신앙의 대상의 일부이며, 교회는 병자와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권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죽은 후의 생을 믿으며,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계시록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열 지파가 잃어 버려진 것을 믿고, 그들이(열 지파)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과학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진리가 서로 보완해 주고 있음을 믿으며, 그들은 다른 후성에도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된 교회가 지니고 있으리라고 여겨진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모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렵 나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성경으로부터 많은 종교적인 진리가 없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 그리고 애즈텍 문명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언어를 해독할 수만 있다면 참된 종교를 가져 내는 열쇠가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이러한 문명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을 때 내가 이같은 연구를 시도하게 된 이유는 내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나는 책 두 권을 샀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언어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연구하면서 내가 “참된 교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친한 친구를 불러 이러한 개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교회가 갖고 있을 원리 하나를 말하면 그녀는 항상 “어머, 그건 물몬들이 믿고

있는 교리이에요.” 또는 “그것은 물몬 교리와 같은데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물몬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서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가진 교리와 성약을 읽어 볼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하룻 밖에 그 책을 다 읽었으며,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저서, 신앙개조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전화하여 선교사들을 내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내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년간에 걸친 나의 연구를 통하여 교훈에 교훈이 더하여지리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나와 침례 접전을 가졌던 지역 관리 선교사가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묘사한 아름다운 구절로 끝나는 니파이삼서 17장을 읽었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메인 채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알고 있었어요. 난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음을 알고 있었어요.”하고 말했다.

나는 고대 미대륙의 경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





엘런 이 린스터 형제
교회 번역 출판부 언어 책임자

최초로 물몬경이 출판된 이래 지금까지 몇 개의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몇 부나 배부되었습니까?

18 30년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최초의 물몬경 5천 권이 출판된 이래, 물몬경은 27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현재, 데저렛 알파벳, 웨일즈어, 터어키어, 체코어, 그리고 알메니아어, 물몬경은 없어졌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영어, 덴마크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마오리어, 네델란드어, 사모아어, 타히티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통가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라로통가어, 중국어, 한국어, 아프리카어, 태국어, 그리

고 인도네시아어이며, 점차 물몬경도 있습니다.

아직 물몬경이 전세계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책으로까지 미치지 못하였어도 그 보급률은 대단합니다. 1830년 이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인쇄된 물몬경의 부수는 1천 8백만 권에 달합니다. 복원 교회에서도 물몬경을 출판하였습니다. 1967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성스러운 기록이 약 백만 권이나 22개 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성경과 비교해 본다면, 성경은 1,550여 개 국어로 출판되었으며, 1975년 한 해 동안 성경 신구약 합본은 6백만 권이 보급되었고, 약 3억 권의 성경 소책자가 보급되었습니다.

분류 기준과 전적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약 3,500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언어 사용 인구 백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언어는 약 114개 언어가 되며, 그중에서 22개 언어로 물몬경이 출판되어 세계 인구의 약 40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물몬경의 번역 사업은 문자 그대로 다년간의 인내와 기도하는 수고를 요하는 막중한 과업입니다. 여기에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영어와 자기 나라말에 대한 은사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음성학적인 문제에 직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나 다른 많은 언어에서 단수형이나 복수형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동사가 있는

반면 어떤 언어에서는 단수형과 복수형에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니파이가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저들이 내게 화를 내어”(니일 7:16)라는 ‘문장을 번역해야 할 경우, 번역사는 니파이가 형제 두 명에게만 말한 것인지 두 명이 상에게 말한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어떤 언어에는 “형제 (brother)”라는 단어가 대응되는 단어가 없고, “형” 또는 “동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번역사는 “Brother of Jared”이 야렛의 동생인지 형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사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 43절에 나오는 “betimes”라는 단어는 “때때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나, 좀더 자세히 조사하면 요셉 스미스 당시에는 이 단어가 “...하는 때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은 물론경 번역이 왜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번역사와 검토자들이 왜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간단한 세 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

물론경의 모든 판이 공식적인 교회 번역사가 번역 사업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물론경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강한 동기를 느껴 자신의 시간을 바쳐 번역하여 그 원고를 자발적으로 교회 본부에 기증한 예가 여럿이 됩니다.

또한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아 번역을 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어

물론경은 그 지역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유능한 사람에 의하여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번역하는 중에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물론경을 깊이 연구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여야 할지 알려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언어”로 물론경이 번역되고 있는지, 혹은 다음에는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한 발표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며, 합당한 때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경에는.....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교성 20:9) 있으며, “이 교회의 장로와 교사들은.....물론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교성 42:12) 될 것이고, 말일에 “모든 사람은.....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교성 90:11)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은 그의 방법으로 모든 언어와 문자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수십 개국의 수백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나라말로 물론경을 읽고 있으며, 그것이 참되다는 강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간증을 믿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남미에 있는 교회에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훌륭한 사업에 대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서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감독으로서, 그리고 기타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중책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기초가 놓여졌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에서 매우 실질적으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게 될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온의 스테이크가 이곳에 조직된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의 수가 불어 나고, 스테이크가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온 건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말일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과 시온의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저버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의 모든 나라에 분산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주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집합시키시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그의 말일의 시온을 건설할 책임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말일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과 시온의 건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집합과 북미에서의 시온의 스테이크 건설 등을 포함하는 초기 단계의 사업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시키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상의 아주 먼 곳에도 시온의 스테이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남미의 모든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바로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의 입으로 그리고 3,000년 전에 생존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성신의 감화를 입어 말한 고대의 거룩한 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에게 전해지리니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시 102 : 18)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요, 또다시 계시를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새로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는 것입니다. (시 102 : 13-16)

이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시온을 건설하실 방법, 곧 주님이 시온에 자비

를 베풀고 계시는 방법과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는 데 말아야 할 임무에 대하여 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합당하게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시온 건설

영감으로 작성된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시온은 건설될 것이며, 완전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만유의 회복이 완성되는 복년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온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시온의 기초를 놓을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인자의 재림에 대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친히 영광 중에 나타나시어 거룩한 도시를 또다시 영화롭게 만드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시온의 기초를 놓으며 모든 일을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온에 모두 오라”고 외칩니다. (“애 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6장)

시온의 정의

그러면 시온이란 무엇이며, 시온은 어디에 건설될까요? 우리는 어떤 땅에 시온의 벽을 세울까요? 어디에 우리는 시온의 문과 튼튼한 탑을 세울까요? 시온의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시온의 주민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도다”(시 87 : 2-3, 5)

시온은 여러 번 인간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어떤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

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있었을 때, 주님의 성도들이 “마음의 뜻을 다하며”(나이 31: 13) 주님을 섬기었을 때마다 시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온에 관한 최초의 경전 기록은 에녹과 그의 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과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 예언자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육신으로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사악함과 악이 가득 찬 시대요, 어둠과 백반의 시대요, 전쟁과 황폐의 시대요, 물로써 지구를 깨끗케 해야 할 상태까지 접차로 이끌리어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주를 보았고”,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주님과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내시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셨으며, 그에게 “나의 아버지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들 증거하는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녹은 성약을 맺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충실하였으

므로 “주께서는 자기백성과 함께 거하시니 저들이 의롭게 살아” 갔으며, 그들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모세서 7: 18)

다음 설명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이란 백성, 하나님의 성도, 침례받은 자, 성신을 받은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교성 97: 21)

에녹의 도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신 후에 경전에 기록된 대로 에녹은 “한 도시를 세워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이라 칭하였으며” 그 시온은 “하늘로 들리워” 갔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시온)을 받아들이셨음이라. 이로써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세상에 퍼졌던” 것입니다. (모세서 7: 69)

주님의 백성이 벽돌과 회반죽과 돌로 이루어진 집이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서 이룩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하늘로 들리워 올라간 후, 다시 말해서 이 의로운 성도들이 장막 처분에 있는 곳에서 거하기 위해 가버린 후에 개입하여 의롭게 되기를 갈망한 다른 사람들은, 기초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하늘의 권능으로 불들려 시온으로 들어” 갔습니다.

하늘로 들리워 간 이 시온은 주님이 다시 시온을 회복하실 복년 동안 다시 오게 될 것이며, 시온의 주민은 그때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서 7:4-69)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

시온에 관한 이같은 많은 진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알려지고 가르쳐진 사실은 이사야서와 시편 등에 나와 있는 많은 참조 성구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회복의 시대에 세워질 시온의 스테이크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저버리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였으므로 지상의 모든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한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속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다시 얻게 되며, 선한 목자의 참된 우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볼몬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이란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회복되며” 그 후 “약속의 땅 가운데 여러 곳에서 “모이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이 9:2 참조)

이스라엘의 집합으로 인하여 두 가지 일이 성취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목자로 택한 자들, 침수로써의 침례로 그의 이름을 받은 자들, 현세에서 주님의 영을 구하고 앞으로 올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함께 모여 서로 강화시키고 서로 완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은 주님의 집에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으나 이 세상에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은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이스라엘의 조상을 위하여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일의 이경륜의 시대 초기에는 이스라엘 집합의 의미가 남미 산꼭대기에 세운 주님의 집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만이 성도가 서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그곳만이 승영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의식이 집행되는 가장 높으신 이의 신전이었습니다.

전세계의 교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흠오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 다시 모으시는 이의 섭리로 그리스도의 우리가 전세계 방방 곡곡에 떨어져 나가 있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에 세워지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인자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볼몬경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도”가 “은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어린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지면에 흩어진 언약의 백성들”이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일 14:12-14 참조)

우리는 새로운 날에 살고 있습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여 전세계의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세계 각 곳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돕고 격려해 줄 수 있을 만큼 강건하여 졌으며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곳마다 신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남미에 많은 신전이 건립될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

시온의 스테이크도 세계 방방곡곡에 조직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몇 가지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

는 시온의 일부입니다. 시온의 일부를 세우지 않고서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시온이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침례와 순종으로써 마음의 청결함을 입게 됩니다.

스테이크에는 지역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세우는 것은 거룩한 성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의 모든 스테이크는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합소입니다. 페루 사람들의 집합 장소는 페루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거나 앞으로 곧 조직될 스테이크 장소입니다.

칠레인의 집합 장소는 칠레이며, 볼리비아인의 집합 장소는 볼리비아이고, 한국인의 집합소는 한국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은 그리스도의 우리, 곧 각 나라에 세워진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되라” 주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아……너희를 일일이 모으리라”(사 27 : 6, 12)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으로나 가족 단위로 온 지면에 세워진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여서 온 지상이 복음의 결실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관리 역원은 이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득권을 주시고 국적을 주신 곳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시고 가족과 친구를 주신 그곳에 시온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바로 이 남미에 있습니다. 이 시온의 일부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남미 대륙의 모든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워질 시온

주님의 사업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시온 건설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시온의 기초는 이미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남태평양 등 시온의 스테이크가 있는 모든 곳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러한 지역의 어느 곳에서라도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시온이 완전하게 될 때는 고대의 시온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 때입니다.

신앙개조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할……것을 믿는다.” 이 집합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 교회로 들어올 때 이루어집니다. 이 집합은 그들이 물의 침례로 죄를 씻어 다시 한 번 마음의 청결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주민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신앙개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시온을 세우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개조에는 또한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로서, 주님의 백성이 흩어졌던 각 나라로부터 힘과 영향력과 권세를 모은 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신앙개조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와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도 역시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은 곧 우리가 치극히 바라고 찾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10조 참조)

시온 건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시온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라는 약속이 우리에게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와 이웃을 이스라엘의 우리 안으로 모음으로써 시온의 울타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위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를 제정하셨습니다. 주님

은 그의 선택된 백성을 지상의 온 나라로 흠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하늘을 열어 주시므로써, 그의 면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룩한 천사의 성역으로써, 하늘에서 들리는 그의 음성으로써, 성신의 강림으로써, 주님은 다시 그의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암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새로 시온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악을 버리라고 명하셨으며, 우리를 그의 심부름꾼 곧 대표자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하도록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간 증

이 사업은 참으로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진실되며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스며드는 성령의 계시에 따라 말씀드리노니, 나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이 사업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헌신과 열성과 훌륭한 감지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을 받아 그의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원리를 주님의 다른 자녀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다시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술적인 면에서 공과를 준비함

데오 이 맥킨

어린 소년 시절에 나는 유화에 크게 매력을 느꼈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고 유화를 즐긴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물감 속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었던 붓놀림을 유심히 관찰하곤 하였다. 나는 색상이 혼합되고 서로 배치되는 방법에 한없이 이끌리게 되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었다. 결국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도 해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몇 가지의 도구를 구한 어느 날,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되었다.

첫번째로 시도한 것은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하늘을 모두 자세하게 칠하였다. 붓놀림마저도 원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늘을 완성시킨 다음, 장엄한 산을 칠하였다. 그대로 모두 그렸다. 다음에는 나무를 하나씩 차례대로 그렸으며, 다음에는 호수를 그렸다. 계속하여 점차로 밑으로 그림을 완성시켜 오다가 마지막으로 잔디는 캔버스 아래 부분에 조금 남은 여백에 겨우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위대한 걸작”을 보여 주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깨우는 것을 꺼릴 것이 없었다. 사실 그림에 대하여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그 그림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의 성장 단계에 있었던 나로서는 호수에 반사된 색과 반사체의 색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원근의 선과 크기의 관계가 엄청나게 틀려 있다는 것을 알

아낼 수가 없었다.

내가 대학 미술과에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훌륭한 미술가는 결코 캔버스에 맨 윗 부분부터 채워 나가 한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미술가는 그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영상의 윤곽을 뚜렷하게 생각한 다음, 그것의 모든 부분을 거의 동시에 그려 간다.

여기에 한 줄, 저쪽에 한 줄을 더하고, 이쪽에 색을 조금, 저쪽에 조금씩 칠해 가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마침내 실제와 같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훌륭한 교사

복음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는 공과를 기계적이고 완고한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바와 그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파악한다. 공과를 전개하는 방법은 각 교사와 각 공과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 학생이 각 진리를 자신의 성장과 발육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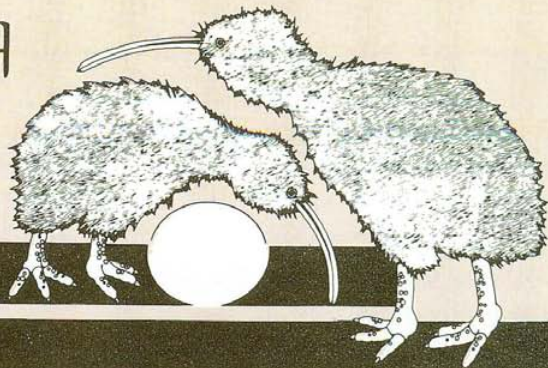
학생은 교사가 제시해 주는 진리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진리를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화가가 자기 앞에 펼쳐진 장면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교한 변화에 민감해야 하듯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29페이지에 계속)



이상한 새

존 러브랜드



새들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대회를 연다면 뉴질랜드산 키위새는 예선에서도 제일 먼저 탈락해 버릴 것이다. 이 기묘하게 생긴 새는 반쯤 바람이 빠진 털로 뭉쳐진 축구공을 닮았고, 길고 가느다란 부리는 누가 공에 바람을 넣고 뽑아 내기를 잊어버린 주사 바늘을 연상시킨다. 이 키위새의 서식지는 뉴질랜드섬의 숲속이다.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것 이외에도 이 키위새는 몇 가지 면에서 보통 새와는 다른 점이 있다. 깃털은 흐릿한 갈색으로, 꼬리도 없으며 날지도 못한다. 털처럼 보이는 깃털 아래 대부분의 다른 새들에게는 날개가 달릴 자리에 혹처럼 생긴 덩어리 두 개가 있을 뿐인데, 이것들은 이 기묘한 새에게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또한 이 키위새만이 부리 끝에 콧구멍이 있는데 이것으로 먹이를 냄새를 맡아 찾아 낸다.

성숙한 키위새의 무게는 약 1.5킬로그램 정도인데 닭 한 마리 정도의 무게와 같다. 알은 무게가 500그램까지 나가는데, 새의 크기와 관련하여 보면, 모든

조류의 알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류 중 가장 작은 새인 벌새는 알이 부화하는 데는 14~16일 걸린다. 닭같이 부화하는 데는 21일 정도 소요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인 타조의 알이 부화하는 데 42일 가량 필요하다. 키위새의 알이 부화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은가? 여기서 또다시 이 새는 그 기묘한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특성을 보여 준다. 키위새의 알이 부화되는 데에는 놀랍게도 약 75일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키위새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동물원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밖의 곳에서는 볼 수 없다.

자연 환경하에서는 그들은 땅속에 파 놓은 자기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어야 밖에 나와서 벌레, 곤충, 열매 따위 좋아하는 먹이를 찾아 나선다. 더구나 키위새의 길고 바늘처럼 생긴 부리는 땅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도구로는 안성마춤이다.

*

감옥에 불이 났다는 놀라운 소문이 니파이 땅에 있는 레이맨인들 사이로 재빨리 퍼져 나갔다. 그래서 바로 오늘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리하이와 니파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다. 리하이와 니파이는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가기 전에 팔천 명이나 되는 레이맨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개종시켰다. 그 선교사들은 이같은 성공적인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인하여 투옥되었으며 여러 날 동안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

바로 오늘은 병사들이 그 죄수들을 끌어 내어 죽이기로 한 날이었다.

니파이인 태생으로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다가 떨어져 나온 자인 아민아대브도 병사들과 호기심이 가득 찬 구경꾼들을 따라서 급히 달려왔다. 그들이 감옥에 도착했을 때 리하이와 니파이가 불기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나 맹렬하여 레이맨인들은 죄수들에게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리하이와 니파이가 불꽃 가운데 서 있으나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 병어리가 된 듯이 서 있었다.

비록 니파이와 리하이는 감옥에 갇혀서 쇠약해졌지만, 그들의 신앙 때문에 적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용기가 솟구쳤다. 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려워 말지니, 보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며……너희가 손을 뻗쳐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보이시느니라.”

갑자기 땅이 몹시 진동하고 시커먼 질은 구름이 모여 선 사람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구름 위에서 다음과 같은 한 음성이 들렸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기쁜 소식을 외쳐 전하게 한 나의

불기둥

메이بل 존스 개뿔



종을 해치려 하지 말지니라.

“.....저들이 이같은 음성을 들을 때에.....이것은 뇌성도 아니요.....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듣는 자의 심령을 꿰뚫었고... “소리가 지극히 부드러웠음에도, 보라 땅이 몹시 요동하여 감옥 벽이 무너져 내릴 듯이 흔들렸으며.....”

세 번이나 어두움을 뚫고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렇지만 레이맨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때 아민아대브가 몸을 돌려 벽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는 리하이와 니파이의 얼굴을 보았다.

아민아대브가 사람들에게서 보라고 소

리치며 니파이와 리하이가 한 말을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다. 레이맨인들은 결손한 마음으로 큰 신앙을 갖고 주께 간구하였다. 갑자기 암흑의 구름이 걷히고 그들 역시 불기둥에 둘러싸였다.

“보라 하나님의 성신이 하늘로부터 내리사 저들의 마음에 임하시니, 저들은 모두 마치 뜨거운 불로 가득찬 듯하여 놀라운 말들을 지껄이더라.”

“이때에 저들에게 음성이 임하여 속삭이듯 즐겁게 이르기를,

“태초로부터 나와 함께 하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너희가 믿음에 평화롭고 다시 평화로울지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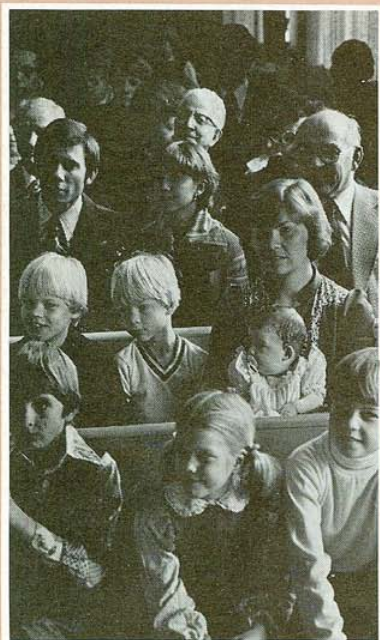




코리의 침례



1 코리는 주일학교와 초등학교에 참석함으로써 침례받을 준비를 합니다.



2

또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성찬식에도 참석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코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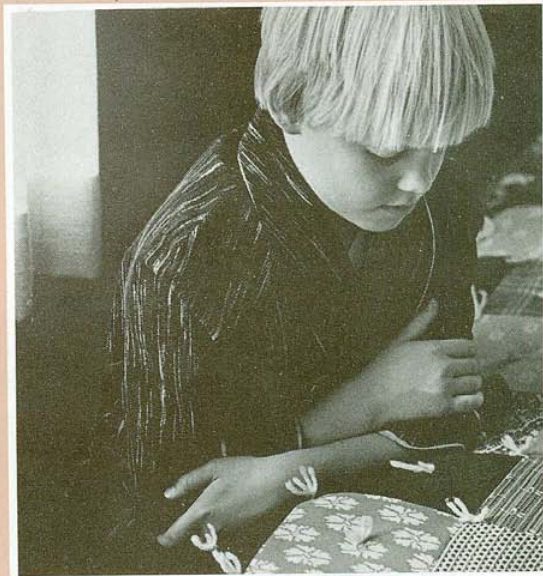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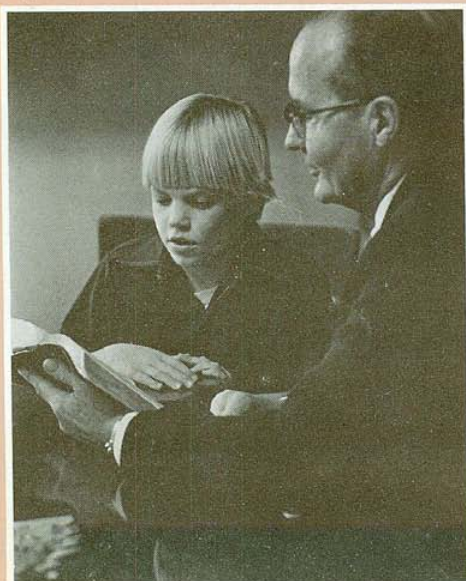
5 코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별한 이번 생일의 중요 성과 칭례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코리와 이야기합니다.



4 가족 모두가 가정의 밤 시간에 코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코리는 감독님과 칭례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합당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



7 또한 그는 토요일에 받을 칭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8

침례식에서 코리는 아버지와 또한 침례를 받을 친구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개회 찬송과 기도가 끝난 후 침례의 중요성에 대한 짙막한 말씀이 있습니다.

9



아이들은 한 사람씩 침례를 행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10

11

코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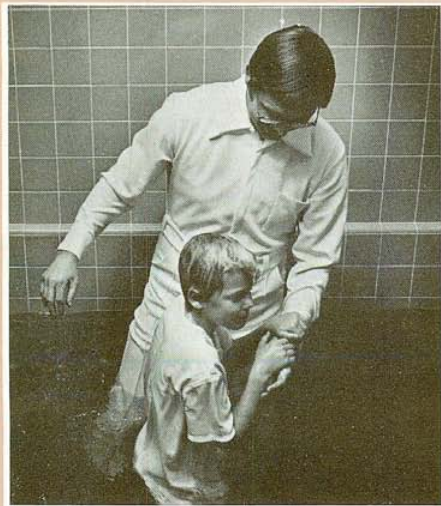
12

그런 다음에 코리의 아버지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한 다음 침수로써의 침례를 줍니다.



13

코리의 가족은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그렇게 여기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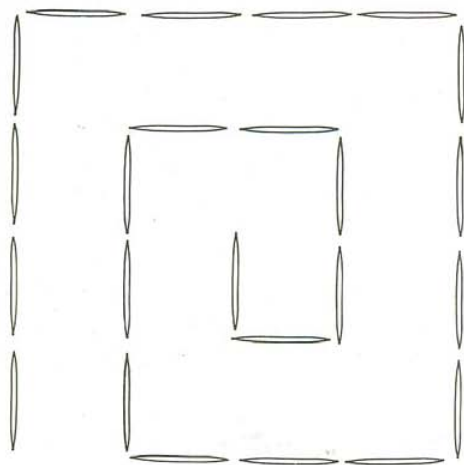


침례를 끝낸 후 코리와 아버지는 침례탕을 떠납니다. 다음 금식 모임에서 코리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을 것이며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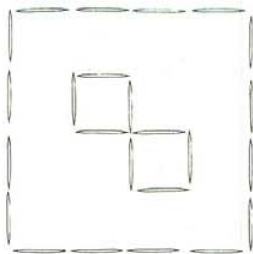


심심풀이



성냥개비 놀이

가족 각자에게 24개의 성냥개비를 주어 그림처럼 늘어놓게 한 다음 성냥개비 4개만 움직여 3개의 정사각형을 누가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시합해 봅시다. 그 방법을 알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를 주어 보세요. 그들도 역시 무척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가족수 알아 맞히기

박 형제 가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박 형제의 딸 각 사람의 남자 형제의 수는 딸 각자의 여자 자매의 수와 같고 이들 각 사람의 여자 누이의 수는 아들 각자의 형제의 수의 배가 됩니다. 박 형제의 가족은 아들이 몇, 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힌트 풀이 '원 원')

곰의 색깔은?

어떤 사냥꾼이 캠프를 쳤습니다. 캠프를 나서서 남쪽으로 10킬로미터 걸어간 다음에 서쪽으로 10킬로미터를 갔습니다. 거기서 곰을 한 마리 발견하고 염종으로 쏘아 잡았습니다. 그는 잡은 곰을 끌고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캠프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 곰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힌트 풀이 극악이
 는늘 사에우근지 이 극악은 극악 수 길이림
 티미르림이 사에우 관관림 비림 이림사 관
 티미르림이 평고늘사 비몽근 관 티미르림
 이 평고늘사 티미르림 사에우 클림 비늘
 금공우사 2 비림비 비 티미르림늘림)

(20페이지에서 계속)

무한히 다양한 필요 사항과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구세주께서는 교수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며,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는 빼앗아 버리리라.”(나이 28 : 30)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교사가 전하는 진리의 양은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준비 상태와 성장 단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로서의 우리의 일에는 이와 같은 융통성이 요구되므로, 교사가 공과를 전개하는 데 사용할 접근 방법을 구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도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8페이지 참조)

목 적

교사는 가르칠 공과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르칠 때 우리는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목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공과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이 돕고 있다. 목적이 세밀히 고려되어 있고,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교재를 주의 깊게 연구하면 누구든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보이드 케이 패커, 119페이지. 본 주제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목적 사용하여 가르침”을 참조한다)

교 재

교회에서 마련되어 가르치고 배우는 공과에는 모두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목적이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저자를 위한 목적, 교사를 위한 목적 그리고 학생을 위한

목적으로 분리된다.

우선 저자는 공과 목적을 활용함으로써 참고 자료를 분류하고 선택하고 구성하여 하나의 공과로 만든다.

교사는 공과에 마련되어 있는 목적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주제를 준비하게 된다. 교사는 공과의 목적을 그의 교양, 교사 자신의 개성, 그리고 반원의 일반적인 필요 사항에 맞는 말로써 표현하여야 한다.

끝으로 목적이 있는 공과는 학생에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시켜 준다. 학생이 공과의 목적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의 일부로 삼을 때, 그 공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과정과 배우는 과정은 노력 없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해 전에 교회 본부 대회의 주일학교 반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준 바 있다.

“예언자 요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모두 번역의 은사를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올리버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를 계시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번역의 은사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은사는 없어졌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각 공과를 가르칠 때마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은사가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호페이스 커밍스 장로, 대회 보고, 1902년 10월, 96페이지)

부름의 옷을 입고

같은 대회에서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장 오래도록 인상을 남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사에게 참고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옷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교사의 의무

의 모양이나 가운데의 모양이나 모자에 꽃은 꽃이나 깃털을 맡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의복에 관하여 맡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부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아의 옷이 그의 후계자에게 던져졌다는 것은 그의 부름의 영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부름의 영은 근면의 영, 곧 여러분에게 지명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면의 영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교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준비하라고 권고하시는 종관리 역원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주님의 영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제임즈 이 탈메지, 대회 보고, 1902년 10월호, 96페이지)

융통성있는 방법

우리가 공과에 담겨 있는 원리를 어떻게 학생에게 전달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영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제시된 공과 자료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십이사도 평의회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주님의 위대한 목적은 항상 같은 것이니, 곧 그의 자녀의 구원과 승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적과 따라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부적인 사항과 방법은 우리가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방법과 절차는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는 생활을 함으로써 개발됩니다. 모세 시

대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덜 발전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사람들은 목적을 유의하여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이 제시하신 지침을 확인하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선교 사업, 신전 사업, 가난한 자에 대한 구조 사업, 의료용 가운데서 자녀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충실한 회원은, 그가 살던 때에 관계없이, 최근에 실시되는 특별한 범교회 프로그램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 목적을 수행하는 의료용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그의 자녀가 스스로 수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하지 않을 때, 더 큰 상을 잃게 됩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전반적인 문제를 완전히 던져 놓고는 그들이 결과를 감수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보다 자세히 일러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이 자세히 일러 주실수록 우리의 상은 작아집니다.”(대회 보고, 1965년 4월 5일, 121—122페이지)

적시에 적절한 일을 행함

“사람을 낚는 어부”(렘 16: 16; 마 4: 19 참조)라고 불리우는 교사로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 교수 순간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영이 인도할 때 그물을 다른 편으로 던질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단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교성 18: 15—16 참조) *

목적을 갖고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교사는 시간 중개인이다. 교사는 중개인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각 학생에게 그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윤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중개인으로서 일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시간 활용을 세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갖는다.

학생들은 그들이 투자한 시간에 대한 이윤으로 어떠한 개념을 얻을 것인지를 주의 깊게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개념이나 교훈을 머리 속에 잔치한다.

교사가 갖고 있는 개념을 반영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택한다.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의 사실만을 택한다.

반에서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시작한다. 짧고도 인상깊은 영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 상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태도이다. 영적인 모임에 이어 생산적인 활동이 따라야 한다.

교사가 주어진 시간을 혼자서 진행한다면 무엇을 얻게 되겠는가를 결정한다. 가장 현명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할당하고, 그들이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 말인가?

공과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의식한다. 공과, 단원, 과정을 통하여 정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반 관리자가 빈틈없고 효율적일 때, 학생들은 크게 감명을 받고 잘 훈련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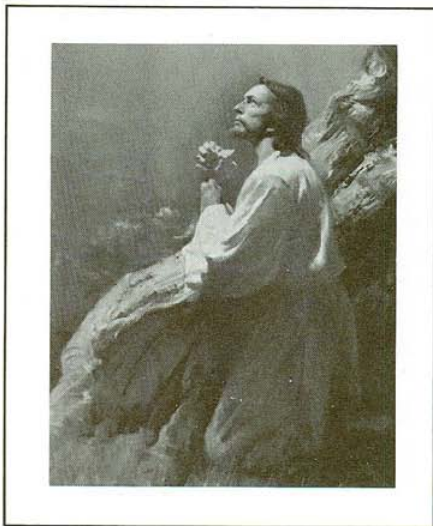
계가 없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용하는 교사를 싫어한다.

시간 엄수는 교사의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것은 부수적인 자격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자격이다.

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의 하나는 교사는 학생의 시간을 가치있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매 시간 출석을 부르는 데 5분 동안 소비한다면 평균 학기년도 동안에 14 시간 10분을 소비하게 된다. 효율적인 교사라면 보조하는 역할을 맡을 학생을 부름으로써 이러한 시간을 1 시간 30분으로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석을 부른다거나, 숙제를 돌려준다거나 늦게 시작한다거나, 불필요한 설교를 늘어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평균 공부 시간의 20퍼센트를 허비하게 되며, 사실 많은 대학 과정에서 정규 계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이러한 것으로 허비되는 경우가 많다. 주일학교 교사도 1년 동안 출석을 부르는 일로 4 시간 가량을 허비하게 되는 수가 있다.

공과 준비

복음에 대한 공과 내용은 주로 태도와 품행



에 관한 것이다. 내용이란 의미를 정립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요 비품에 불과한 것이다.

반원의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여야 한다. 공과와 내용은 하나의 윤곽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것은 반원이나 교사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배워질 수 있다.

보다 나은 준비, “완벽한” 준비는 항상 교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 잔일을 하는 동안, 여행하는 동안, 자주 생기게 되는 기다리는 동안, 유능한 교사는 내일의 공과뿐만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고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으로써 앞으로의 많은 공과를 총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구세주의 비유와 기타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세주께서는 자주 기도하시고 명상과 관찰에 크게 의지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훌륭한 교사는 항상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 공과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문학에 대한 놀라운 지식에 대하여 찬사를 들은 어느 교사는 대부분의 시를 발을 갈면서 외었다고 말하였다. 공과 주제에 부합되는 예화나 이야기를 무궁무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 교사 한 사람도 그러한 자료가 모두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얻게 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끊임없이 너희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교성 84 : 85)는 경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항상 마음이 관조와 명상과 기도로 가득 차게 하고, 손은 항상 연필과 종이와 가깝게 하여 중요한 생각이 시간처럼 재빨리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기록하기 바란다. (보이드 케이 패커,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30장, “교사, 시간 증가인”, 216—220페이지) 교사는 구체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획하여야 한다. 우리는 목적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교회에서는 공

과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목적을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여, 교사가 공과 교재를 주의깊게 읽음으로써 목적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개 관

공과를 시작할 때 학생이 전과를 개관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공과 내용이나 주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 교사는 공과를 거슬러 올라가 자세한 부분을 다룸으로써 보다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때 학생은 공과의 진행을 알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과 시간이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의미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목적을 마음에 두고 공과에 임하게 된다.

학생에게 계획을 알립

만일 내가 회사 건물이나 쇼핑 센터를 짓는 건축가라면 나는 건축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에게 건축 계획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이다. 아마 어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그 부문에 종사하는 특정한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흥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건물 건축 계획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 모두가 그 건물의 모양을 알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맡은 부분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

공과를 준비할 때 현명한 교사는 구체적인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둘 일이다. 교사는 사전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순교와 브리감 영의 계승에 관한 교회사 공과는 학생의 생활에 어떤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가르칠 수 있는 공과이다. 그러나 교사가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교사는 공과를 학생들에게 의미깊은 공과로 이끌 수 있다.

공과를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말하여 이르기
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잔류민, 꺾어진 나
뭇 가지여, 너희는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라.
예언자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
여 기록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너희
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곳의 형제들처럼 너
희도 소망을 갖게 합이라. 이같이 예언자가
기록하였음이니라.”(니파이일서 19: 24)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메시지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특히 청소년들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
지 못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구약이
나 신약, 또는 교회사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존재하
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적
용의 교수법을 사용하여 공과를 가르치면,
그들은 보다 쉽게 그들 자신의 생활에 적용
시키게 된다.

어떤 교사는 공과를 준비할 때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
는 학생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
니까?”라고 질문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교
사는 그 공과의 가르침이 왜 현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사의 준비
와 발표에 모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준다면 청소년의 생활은 훌륭하게 바뀔 수
있다.

공과를 가르칠 때나, 말씀을 할 때나 가
족을 가르칠 때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
적을 적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사항을 결정한 후
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빈 칸에는 반원이 해주기를 원하는 바를
적는다.

예를 들면, 10대의 소녀를 가르치는 반에
서 신권의 회복에 관한 공과를 갖는다고 가
정한다.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공과 제목: 신권의 회복

목적: 신권은 권능을 지닌 하늘의 사자에
의하여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달성하기 위한 방법: 소녀들로 하여금 그
들이 교제하고 있는 소년에게 신권
회 참석을 우선 순위 일위에 놓도
록 격려하게 한다.

이같은 방법을 생각했다면 교사의 교수법
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교사는 공과의 메
시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녀들이 할 수 있
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같은 방법은 공과를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 반에서 교사는 소녀들이 교
제하고 있는 소년에 대하여 언급한다. 교사는
소녀들과 함께 소년을 신권회에 참석하
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할 수 있
다. 그들의 실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실지
의 상황과 예가 공과에 도입될 수 있다.

반면에 교사가 교제대로 정확한 사실만을
가르쳐 주어, 반에 앉아 있는 소녀들이 “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는
불평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달성할 수 있
는 방법”을 공과에 첨가할 때 반토론은 학
생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이 현실 세계로부터 시
작하여 조심스럽게 다른 세계를 가리켜 보일
수 있는 산동성이까지 인도해 가야 한다.

1938년……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
장은 “교회 교육의 과정”에 대하여 말하
셨다. 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
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권 조직입니다. 신권
은 교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
회의 사명은 첫째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 48)는 복음의 말씀과 같이 각 개인
이 영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온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이며, 둘째로 교회는 회원이 그룹으로 복
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외면
적으로 보호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고, 셋째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복음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니, 이는 '모든 무릎이 꿇어 절할 것이요, 모든 혀가 고백할 것'(요성 88:104)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교회나 회원에게서 간과되거나 잊혀지거나 가려지거나 지워져서는 안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육신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독생자요, 세상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어린양이요,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고, 아담의 범법을 구속하신 구속주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으나 사흘만에 그의 영이 그의 몸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 부활한 자, 완전한 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후에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갔으며, 그의 사망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의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있었던 교리입니다.

"부활의 몸은 살과 뼈와 영의 몸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러한 사실과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다른 진리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심으로 믿어야 할 두 가지 중의 두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신성한 숲에서 예언자 요셉에게 시현으로 직접 나타나셨으며, 다른 하늘로부터의 시현이 요셉과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졌고, 초대 교회로부터의 배도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없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르는 성신권과 복음이 지상에 다시 진실로 회복되었으며,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고, 물론경은 진실하며, 예언자에게 교회와 회원을 인도하고 고취시키고, 조직하며, 격려해 주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임하였고, 예언자의 후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서 필요한 계시를 받았고, 교회와 회원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대로 생

활하던 끊임없이 계시를 받을 것이며, 이 교회가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며, 이 교회의 기본되는 신앙은 신앙개조에 밝혀진 율법과 원리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함축된 사실들과 함께 변경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으며, 삭제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묘한 변명으로 없애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신앙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나 복음과 성신권의 회복에 관한 충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말일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믿고 있으며, 이같은, 신앙 때문에 교회와 그 기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현세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교회의 좌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참 위치를 안다면, 우리는 변경해야 할 것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현명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8)

대관장단을 대표하여 말씀하신 클라크 부대관장의 이 말씀은 교회에서 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해 주기도 한다. 나는 해마다 이 말씀을 되읽어 본다. 교회의 모든 교사는 이 말씀을 주의깊게 읽어야 할 줄 안다.....

교회의 교사와 부모로서 우리가 모두 여기에서 주어진 훌륭한 권고와 지혜의 말씀에 따르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더욱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보이드 케이 페커,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8장, "목적", 119-122, 125-129페이지)

*



아시아의 이스라엘인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 글

팔머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아시아 연구소장이며, 신학 대학에서 역사와 종교를 맡아 가르치는 교수이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말일성도 군목으로 복무한 바 있으며, 한국 선교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능한 연사요 저술가인 박사는 최근에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저서를 발간 하였다.

한국 석굴암에 새겨진 돌 불상. 이 키가 크고 긴 코를 가진 아리아족 또는 셈족의 모습을 한 불상은 초기에 서남아시아로부터 영향이 미쳤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불상은 8세기 경에 조각된 것이다.

경건의 기록,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놀랄 만한 역사적인 근거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분산되었음을 풍부히 증명해 주고 있다. 동양인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합법적인 상속인이다. 많은 저술가들이 당대의 유럽과 미대륙의 종족과 고대 이스라엘의 특정한 지파를 동일한 지파로 다루고 있음에 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아 지역으로 분산되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분산에 관하여 주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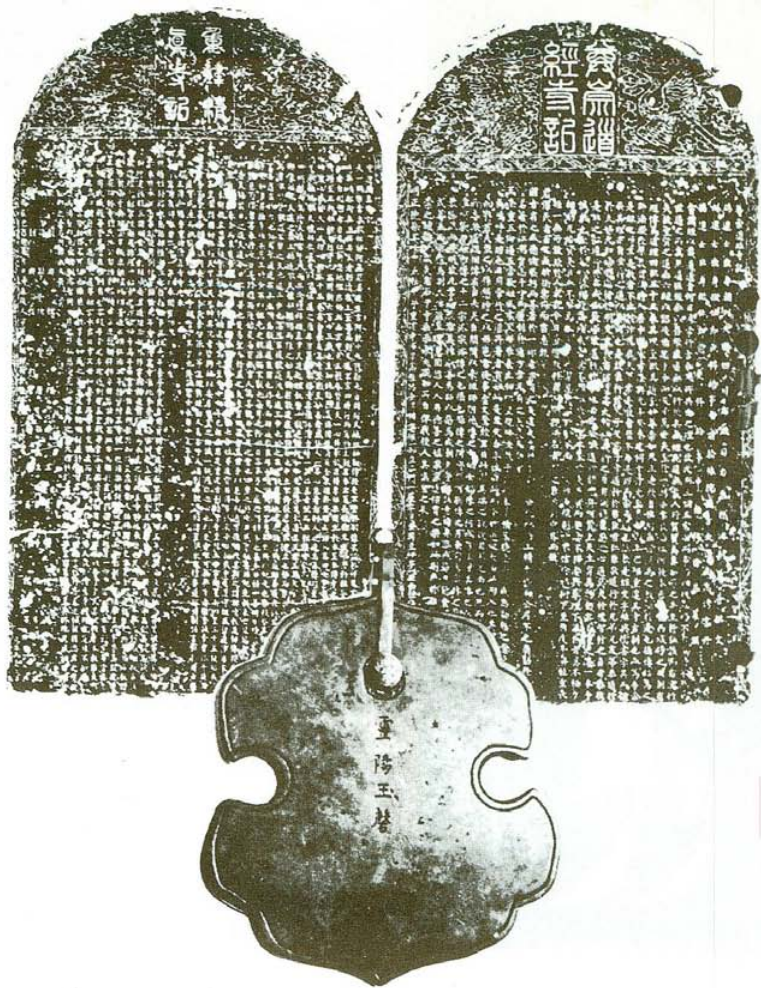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암 9: 9) 이 예언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윤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메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더라”(왕하 15: 29)

유프라테스강을 넘어 북방으로 추방당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유다의 포로와는 달리 결코 팔레스타인으로 모든 지파가 돌아오지 않았다. (스. 2: 1 참조)

이스라엘 포로 잔류민이 돌아오는 것에 관하여 이사야는 그들이 땅의 사방에서 모여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사 11: 11-12 참조)

이 분산된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이 말일의 예언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커틀랜드 신전 헌납 기도에도 나타나 있다.

“땅 끝까지 쫓겨나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진리를 알게 되고 메시아를 믿어 압박에서 벗어나 당신 앞에서 기뻐하



위의 잉크 판화는 카이핑에 있는 초기 기념석의 반대면을 든 것이다. 왼쪽의 것은 14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첫번째 명각이다. 오른쪽의 것은 1512년에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나라 때에(주전 206년부터 주후 220년) 중국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와 12세기에 인도를 거쳐온 다른 이주민에 관하여 알려 주고 있다.

검정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차침, 또는 공명이 칠되는 짙은 회담이 번성하던 때에 매일 세 차례씩 울리어서 신도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려 주었다. 이 차침은 현재 로얄 온테리오 박물관에 보장되어 있다. 12인치 너비의 이 차침의 전면에는 "영적인 정수를 일깨워 주는 옥 차침"이라는 뜻의 한문 녀자가 새겨져 있다. 몇 가지 나타난 특징으로 보아 명나라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교성 109 : 67)

예언자의 열렬한 기도가 된 것처럼 용맹스러운 말일성도 선교사 일단이 이른 시기인 1850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합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였던 율슨 하이드 장로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엑스포 70에서 선교사들이 물론관에서 보인 활동을 보았다면 크게 놀랐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부터, 러시아가 선교 지역으로 헌납되었던 때부터 교회는 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는 9개의 선교부가 있으며, 물론경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몇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아시아에서의 침례율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 인구의 삼분지 일을 수용하고 있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교리와 성약의 첫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고에 대한 열의가 새로와지고 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교성 1 : 1).

극동 지역에 선교 사업이 행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재현된 고대 이스라엘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발견된 인공품 몇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분산되었을 때의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었다. 고대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전세계로 발전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며, 조상을 그와 같은 존경을 갖고 대하는 아시아인에게도 중요한 일이 된다. 아시아인과 혼어진 이스라엘 조상이 서로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은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특별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말라바 유대인의 고대 금속판

인도의 말라바 해안에 있는 “백색 유대인

(White Jews)”이라는 중국 부락에서는 말라바의 힌두교 지도자가 수세기 전에 조셉 타반에게 수여한 몇 가지 특혜가 고대 타밀어로 새겨진 숫쇠판 또는 구리판을 두 개 갖고 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가장 귀중한 역사 기록——그들의 헌장. 그들 원주민의 행적——으로 매우 소중히 아끼고 있어, “화라테시” 회당에 있는 판달이라 하는 철케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¹

다음은 이들 유대인의 도락에 관계되는 사건을 해설한 것이다.

“두번째 신전이 파괴된 후(이 신전은 하나님께서 속히 재건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정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많은 남녀,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땅으로 왔다. 그들 중에는 상당히 풍부한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당시 이곳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보는 앞에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었다. 그리하여 왕은 그들에게 살 곳을 하사하여 그곳을 크랑가노어라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귀족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 지역 안에서 족장으로서의 통치권을 허락해 주었으며, 당시의 풍습에 따라 왕으로부터 내려진 하사를 숫쇠판에 기록하였다. 이 일이 있던 때는 지구가 창조된 이후 4250년(주후 490년)이었으며, 우리는 지금도 이 숫쇠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크랑가노어에 약 천년 동안 살았으며, 통치자의 수도 72명이 되었다. 우리가 정직한 이후, 곧 다른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우리를 따라왔다. 이들 중에는 지혜가 남다른 람비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레위인으로서 아들 람비 에훤다 레위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두번째 신전이 무너질 때 구해 낸 은제 트럼펫을 갖고 왔는데, 이 트럼펫은 기쁨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그 트럼펫 위에는 입에 올리기에 황송한 이름의 글자가 새겨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밖에도 스켄인에서 온 무리, 다른 지방에서 온 무리, 이따금 우리가 번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유대인

이나 이스라엘인의 무리가 우리와 연합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사이에는 분쟁이 일게 되었다. 즉장도 한 명이 인도의 왕의 힘을 얻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우리 종족의 가족과 궁과 요새를 무너뜨리고 크랑가노어에서부터 우리를 내어 쫓고는 더러 죽이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 갔다. 다소간의 망명자들이 코친까지 와서 살게 되었으며, 그후로 이곳에서 간혹 큰 변화에 시달리면서 살아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에는 전부터 이 나라에서 살아 오고 있던 사람들이 외에도 아쉬케나즈, 이집트 토바 등지에서 온 이스라엘 자녀들이 있다.”²

인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예루살렘 또는 백색 유대인이며, 다른 하나는 소위 흑색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흑색 유대인은 백색 유대인보다 훨씬 먼저 인도에 도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은 검은 피부색과 유럽계 유대인을 닮은 점은 그들이 서부의 유대인 이전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다. 흑색 유대인은 인도와 중국에 있는 유대인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유명한 학자인 클라디어스 부케년씨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말라바 해안을 방문하였을 때 그와 같은 이주민 65개의 명단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최근에 이러한 곳을 많이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유대인들은 동방에서 결코 서로간의 교류를 끊지 않는다. 유대인 가족은 일반적으로 전제 군주에 복종하는 정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상업상의 일로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닌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나라를 다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대한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 소문은 곧 온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³

중국에 있는 비중국인

서양 사람들은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타일랜드인이거나 인도네시아인 등의 종족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들 동양인이 모두 같은 종족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인의 종족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시아 대륙은 많은 다른 종족들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보아서 틀리지 않는다.

중국인 하나만 보더라도 모두 같은 인종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 인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 인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산지 원주민과 광둥인 사이에 언어나 관습이 유사한 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일랜드인이 불가리아인에게서 유사한 언어와 관습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로 샹린 교수의 중국 민족의 족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는 여러 씨족이 중국으로 이주해 왔으며 서로 다른 종족간의 잡혼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종족 중에는 서남 아시아에서 온 종족도 있었다고 한다.⁴ 이들 여러 혼혈 그룹 중에는 쉐족과 코카서스족의 그룹이 많이 있었다. 로드니 길버트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교 시대에 금발의 아리안 어족이 지금의 북중국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눈빛이나 머리 빛이 엷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금발 종족이 이주해 와서 약간은 중국에 흡수되어 동화된 것에 틀림없다. 인도인, 아랍인, 유대인, 러시아인의 개척단들도 흡수 동화되었다.……중국 대륙 안에는 아직도 자기 종족의 특성과 그들 자신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며 존속하고 있는 비중국인의 부족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도 서서히 동화되고 있으며, 2, 3세대가 지나면 그들 자신의 전통을 거의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⁵

“외래” 그룹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상이점은 지금까지도 중국 여러 지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린 그로우세트씨는 타림 분지에 살고 있는 오아시스 주민들은 그 들레에

미국인 화가 베리 브라인이 그린 황큐우에 있는 중국계 유대인의 초상화는 히브리족이 전세계에 퍼져 나가 정착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다.

있는 알라이족 유목민과 다른 농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몽고족과는 다르고 코카서스족의 하나인 아리아 어족과 매우 비슷하다.”⁶

유대 상인과 아시아 대상로

지 에프 허드슨은 초기 로마 시대부터 중국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통신, 여행,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한 시대에(그리스도 전후로 약 200년 동안) 동방과 서방의 비단 무역은 정점에 달하였으며, 이로써 외국의 상인과 무역상은 물론 합류하게 되었다. 남자들은 생명을 걸고 육로나 해로를 이용하여 당시에는 중국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값비싼 물건을 로마로 가져 갔다.⁷

이스라엘 이주민이 이사야 49장 12절이 기록되기 200년 전에 이미 중앙 아시아 지역에 정착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사야의 기록은 중국(“시남땅”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그리스도 시대 이전 적어도 천년 전부터 이미 서방 세계와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낙타 대상로가 고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중앙 아시아산의 낙타가 주전 2000년경 고

대 바빌론에서 알려졌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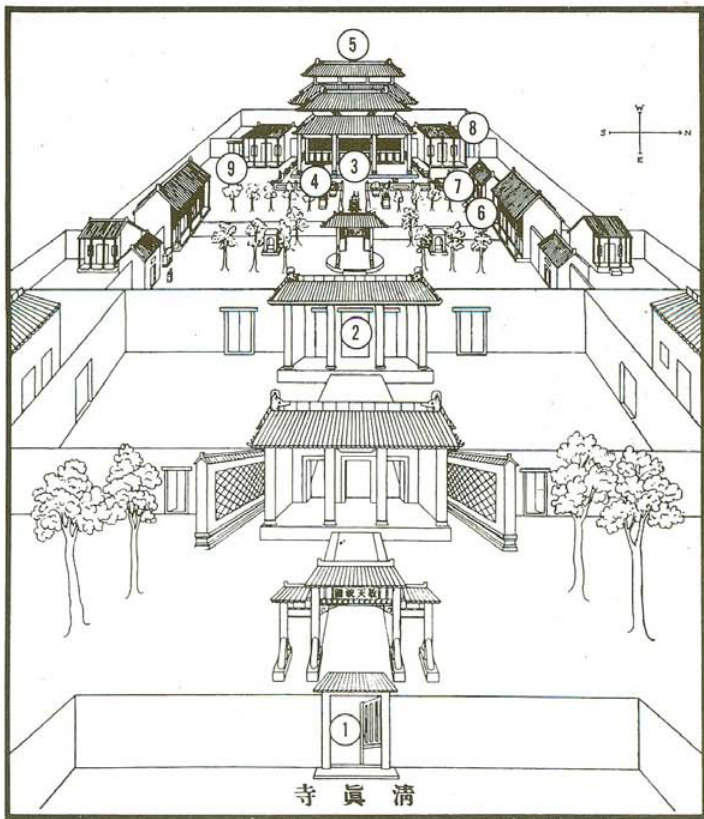
이스라엘 이주민이 주전 720년에 이란 메디아의 무역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중국까지 이르는 직선 도로가 중앙 아시아를 가로질러 펼쳐 있는 이란 오아시스 상인로로 이미 나 있었다. 이들 이스라엘인들은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과 싸우며 사막을 개척해 나간 것이 아니었다. 모든 오아시스에는 이란 어로써 그들은 자기들과 교역을 하고 싶어 하는 유목민을 상대하고 있었다.

두 유대 종족은 이미 중국의 투르게스탄 지방에 퍼진 유대교의 의의를 설명해 주고 있다. 오렐 스타틴경은 북방 대상로에 있는 어느 곳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페르시아 상업 편지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주후 708년의 일이었다. 다른 문서는 약 15년 전에 투게루스탄에 있는 고대 문왕 도시로부터 남부 대상로를 거쳐서 왔다. 지하 수도원 도서관에서 불란서의 학자 폴 펠리오 교수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종이를 발견하였다. 이를 출판한 필립 버거와 모이스 슈와브씨는 이것의 연대를 8세기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 중 가장 오래 된 히브리 문서인 것이다. 이 기록은 시편과 예언서의 문구로 이루어진 간단한 예배 문서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당시에는 중국에만 만들어졌던 종이에 기록되어 있었다.⁹

카이펑 유대인

“유대의 분산된 민족”이 중국에 정착하였다는 인간의 지식은 아직도 불충분하다. 이 문제에 관한 서방의 관심은 웅가이 티엔이라 하는 카이펑 유대인이 제수잇 교단의 선교사이며 학자인 마테오 릿치를 방문하였던 160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19세기 말까지 외국인들은 이들 유대 잔류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부 아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는 릿치 신부의 설명은 유럽 세계에서 극적인 선봉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카이펑 회당의 외부

1. 차오 클란의 기념문(파이로 우). 이 문을 통하여 회당 뜰에 들어갈 수 있다.
2. 에르멘, 또는 중문 두 개의 옆문이 있다.
3. 본당(치엔 티엔)
4. 본당 동쪽에 있는 테라스. 초막질 때에 이곳에 초막을 짓는다. 이곳은 흰색 대리석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대리석은 회당이 무너질 때 유교 사원으로 옮겨졌으며, 그 사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5. 후당(호우 티엔). 후아 시대(1465-88)에는 이 당의 뒷면과 서쪽에 세개의 방(치엔)이 붙어 있었다. 유명한 문서의 궤(천칭칸)와 정방형 경전 일부의 모음(광칭)과 기타 문서(산치), 그리고 회당에서 가장 성스러운 부분과 관련된 다른 물건들이 비치되었던 방의 일부였을에 틀림이 없다.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이 방은 천정이 있는 복도로 본당과 이어져 있다.
6. 코우서(유태인의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의 고기를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부엌.
7. 돌로 쌓은 우물.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므로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종교적인 씻음의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8. 종교의 시조-아브라함을 기념하는 방.
9. 거룩한 축복사의 방.

친주교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 신교 선교사와 나중에는 유대인까지 합세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릿치 신부는 카이펑 유대인 집단을 최초로 발견하게 된 상황과 몇 가지 합측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고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유대인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러한 가족의 수는 아주 적으며, 호난 도청인 카이펑 푸와 체캉 도청인 항조우 푸 의에는 그들의 회당이 없었다. 여기서(카이펑 회당에서)는 모세 오경이 모음이 없이 고대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이외의 다른 구약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슨 책이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고대의 의식에 따라 지금도 꿩고기와 근육이 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그곳에 특히 북부 지방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것은 불과 몇 년 안되었다. 60년 전에 그들의 가족의 수가 불어나고 그들의 학문과 군사력이 번성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이들에 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적인 모하멧인들로부터 선동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이들을 잡으려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피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터어키인이나 유대인으로 피신하였으나, 대부분은 이방인(중국계의 유교 신봉자, 불교인, 도교인 등등)으로 되었다. 그들의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찰로 변해 버렸고, 그들의 후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에 십자가의 상징을 만드는 관습을 그대로 지켜 오고 있지만, 십자가를 숭배하는 자들의 자존심을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 십자가를 표시하는 때를 알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징은 그들이 중

국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¹⁰

릿치 신부가 저술한 책이 아이라는 성을 가진 호난 지방의 유대인의 손에 들어왔다. 중국에서 “하늘에 계신 왕”을 경배하는 외국인들의 책을 읽은 그는 그들이 분명히 모세의 율법의 추종자이리라고 확신하여 이들 성직자를 찾았다. 이 방문을 통하여 카이펑에 10내지 12 가구의 유대인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과 그곳에는 뜰과 누각과 북쪽에 셋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중앙 성소가 있는 아름다운 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쪽 먼은 도산장으로, 회당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방법대로 동물을 죽이는 곳이었다. 카이펑 유대인은 양피지에 기록되어 다섯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모세 오경을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있었다.¹¹ 다른 유대인은 항조우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 옮겨 온 연대는 적어도 600년 전으로 생각된다.

이 유대 후손인 중국인은 이상한 발음으로 구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를 들면, 그는 예루살렘을 헤이루솔로임이라고 불렀으며,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메시아를 모시시아라고 불렀다. 그는 자기는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카이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에 자리잡고 있는 이스라엘인

4개의 큰 섬과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을 따라 1,500마일 가량 길게 늘어서 있는 일본 군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바다를 통하여 이 섬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곳의 이주민들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대륙에서 왔고 동남 아시아,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¹² 최초의 이주민으로 알려진 종족은 현재 북부 지역에 소수의 집단이 생존하고 있는 코카서스인인 아이누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에서와 같이¹³ 불그스름한 피부에, 긴

코를 가진 켈족과 아리안족도 나타났다.¹⁴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일본 군도로 이주해 온 여러 그룹 중에 고대 이스라엘의 잔류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

1. 월터 제이 피셀의 "발라바 연안의 코친에 있는 유대 유물 발굴" 미국 동양 협회지, 제87권 (1967, 230-48페이지 참조)
2. 클라디어스 부캐넌의 아시아의 기독교 탐구에서 인용함(런던: 지 시드니, 1812년)
3. 같은 책, 225페이지.
4. "중국 제보 연구", 홍콩 대학보(제14권, 제1호, 1966년 11월): 올트람 에버하드, 동부 및 남부 중국 문화(레이트: 이 제이 보일, 1968년) 이 기사는 "외국"의 침입과 관련하여 초기의 중국에 일어난 광범위한 인구 변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5. 로드니 길버트, 중국에 무슨 일이 있는가(런던: 존 머레이, 1926년), 51페이지.
6. 중국 제국의 융성과 위업(버클리과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사, 1953년), 70페이지
7. 지 에프 허드슨, 유럽과 중국: 초기부터 1800년까지의 상호 관계(보스턴: 베이컨 출판사, 1961년), 7세기의 예술 작품에 의상이나 용모에서 양 사람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관하여는 제인 게스튼 말러의 중국 당대 미술에서 나타나 있는 서양인(로마: 인스티튜토 이탈리아노 페르 II 메디코 에드 에스트레토 오리엘트, 1959년)
8. "시남"이란 단어는 그리스도 이전에 중국에 대하여 사용되던 서양어이다. 이 단어는 주전 221년부터 주전 209년까지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작은 국가인 "진"(Ts'in or Ch'in)으로부터 파생된 말이다.
9. 엘른 에이치 고드베이의 신비의 잃어버린 지파: 히브리 역사의 재기록에 대한 제언(버펄: 듀크 대학 출판사, 1930년), 39페이지 참조
10. 루돌프 로웬달, "중국의 초기 유대인" 민족학(북경: 북경 카톨릭 대학교 출판사, 1946년), 제5권, 393-95페이지에서.
11. 윌리엄 시 화이트씨는 1919년에 중국계 유대인의 잔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가 발견한 사실들은 1942년에 토론토

대학교 출판사가 출판하였고 1966년에 뉴욕에 있는 파타곤 북 리프린트 코퍼레이션에서 중국계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재판하였다. 화이트씨는 또한 아시아 매거진(1936년 1월) 54-61페이지에서 "중국계 유대인"이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12. 오늘날의 일본은 여러 인종과 문화 종족의 혼합이며, 태평양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소수의 종족이 모였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를 띄워 태평양을 향해 탐험의 길을 떠났으나 "아무도 저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엘 63:5-8)던 헤이그도가 생각난다. 유명한 콘티카 탐험을 뒤받침해 주는 학설을 입증하면서 토어 하이어달은 그의 저서 태평양의 아메리카 인디언(런던: 조지 엘른 앤드 언윈 출판사, 1952년)에서 초기 태평양을 향한 항해는 거의가 미대륙으로부터 서쪽 코스를 택하는 경향이 컸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탐구 자료는 이같은 역사적인 탐험이 대부분 동남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 닿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야마도 일본인"과 아이누 원주민 사이의 접촉, 그리고 이들을 일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종과 문화에 흡수 동화시켜 보려는 초기의 의식적인 시도에 관하여는 존 에이 해리슨씨의 북일본의 아이누(아메리칸 필로소피컬 소사이어티의 회보, 1960년 4월)에서 다루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관하여는 닐 지 빈로우의 아이누 신조와 문화(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사, 1963년)를 참조한다.
13. 초기 한국인이 서남 아시아인과의 교류를 가졌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는 약 8세기경,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 사원의 벽에 조각되어 있는 키가 크고 코가 긴 불상이다. 어떤 학자는 "이 불상의 얼굴 모습은 확실히 유대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였다. 찰스 엘른 클라크의 고대 한국의 종교(뉴욕: 플레밍 에이치 매벤사, (932년), 58페이지를 참조한다.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 회보, 제5권 제1호(1914) 1-39페이지에서 이 에이 고든은 "한국 사원에서 최근에 발견된 발견품과 초기 동양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증거를 보충해 주고 있다.
14. 일본에 미친 히브리 영향을 말해 주는 고대 유적에 관하여는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힐만 니커의 극동 지역의 방랑자와 정주민: 중국과 일본에서의 유대인의 한 세기 역사(뉴욕: 트웨인 출판사, 1962년), 156-60페이지. 고대 일본의 신비에 관한 팔머 교수의 논문, "그리스도가 일본을 방문하였는가?" 브리검 영 대학 논문(1970년 겨울) 135-60페이지; 그리고 아더 로이드의 반 일본의 신조: 일본 불교의 역사적인 스케치(런던: 스미스와 엘더 컴퍼니, 1911년), 49-55, 219페이지.

